

책을 기획하며 산다는 것은

‘나는 빼끼다’, 세상의 심연으로
독자를 유혹하는

정민영(아트북스 대표)

예전에 미술은 생활세계의 일부였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미술은 실용성을 겸비하여, 생활의 일부로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서구 미술이 유입되면서 미술은 생활세계와 분단된 채 ‘미술을 위한 미술’로 가출해 버렸고, ‘아이쇼 팅’ 용의 희귀한 물건으로 둔갑했다.



이렇게 ‘가출한’ 미술은 다시 ‘미술의 고향’인 생활세계로 돌아가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삶을 기름지고 건강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술을 ‘귀기’ 시킬 수 있을까? 미술책이, 미술과 생활의 ‘분단’ 현실을 치유해 줄 ‘통일방안’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토대로 일반 독자와 교감할 수 있는 미술책 생산에 관해 고민한다.

몇 년 전, 한 미술잡지를 진두지휘하면서도 미술의 즐거움을 독자에게 찾아주는 기획기사 쪽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생활 속의 미술’ 섹션이 그 하나였고, 기사체의 다양화도 그런 취지의 실천이었다. 편지, 기행문, 일기, 기사 속에 필자가 노출돼 있는 글쓰기 등의 변화를 통해 정보 전달이라는 기사의 틀은 유지하되, 자유로운 형식의 글쓰기로 미술에 관한 글읽기의 즐거움을 찾아주고 싶었다. 이런 생각은 단행본 작업으로도 이어졌다.

나는 책을 기획편집하면서 다른 미술책은 참조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미술책이 내 시계(視界)에 들어와 있는 탓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미술책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술 ‘밖’의 책들을 통해, 미술을 더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가령 미술잡지를 창간하더라도 기존의 미술잡지와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성지나 영화잡지, 각종 시사지, 일간지 같은 다른 매체를 눈여겨보며, 그들이 어떻게 독자와 호흡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는 미술 단행본 기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각종 잡지나 다른 분야의 책과 접촉하면서 매순간 점화되는 아이디어를 익혀,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있어야 할 책을 그려본다. 그런 가운데 내용이며 편집디자인이 미끈하게 빠진 책을 만나면 반드시 구입해 보고, 어루만져본다.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 개발은 물론 미적인 센스를 키우는데 약이 된다.

문제는 아이디어를 부화시켜줄 필자의 부재다. 적합한 필자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가방끈이 긴 미술이론 전공자들은 대부분 대중적인 글쓰기에는 관심이 없고, 무거운 연구서만 챙기려 든다. 독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것이다. 하여 발아하지 못한 기획아이디어는 수첩 속에 잠들어 있기 일쑤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대중적으로 가공해 줄 ‘중간필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미술계에도 고고한 전문성의 산정(山頂)에서 하산하여, 사람들의 잠재된 미적 안목을 일깨워줄 ‘원효’가 필요하다고 말이다. 이런 중간필자의 개발과 다른 매체에 대한 관심은 곧 내가 지향하는 ‘생활 속의 미술’을 개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잡지의 장점을 살린 ‘잡지형 단행본’을 원하는 것도, 이모티콘 같은 통신언어의 사용에 관한 것도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 있다.

미술전공자이자, 미술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맛본 미술의 재미와 깊이를 단행본으로 요리해서 독자를 유혹하는 것, 그것이 미술책을 만드는 즐거움이다. 이를테면 나는 ‘빼끼’다. 독자를 맛갈스런 책과 흥미진진한 미술의 심연으로 유혹하는 ‘빼끼’ 말이다. **정민영**